

# 2024.12.18.(수) 증권사리포트

코원테크

수주, 인식, 시너지 효과

[출처] 유안타증권 권명준 애널리스트

다시봐: 수주

코원테크는 1998년 설립되었으며, 2019년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다. 공정 자동화시스템 사업부문과 자동화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부문을 영위했으며, 2021년 탐머티리얼 지분 인수를 통해 2차전지 소재 및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하였다.

2023년 7월 이후 지속적인 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실적(매출액과 영업이익)과의 상관관계 보다 수주 추이와 주가흐름의 상관관계가 높다. 4Q24의 수주액이 전분기대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다시봐: 2차전지 장비 기업이라는 인식

주력사업은 공정 자동화시스템이다. 99년 Staker Crane Controller를 개발, 02년 자동화 설비 제조 등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2차전지 산업으로 진출, 현재 물류자동화와 AGV/AMR 위주로 매출이 발생한다. 2차전지 산업향 매출 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동사는 2차전지 장비기업으로 시장에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동사의 장비는 2차전지 제조를 위한 생산라인에 탑재된 제품이 아니며 타 산업으로의 확장 적용이 가능하다. 제품의 성향을 고려시 2차전지 장비 기업이 아닌 스마트팩토리와 물류이송로봇기업 관련 기업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시봐: 자회사와의 시너지효과

별도사업만으로도 인식변화에 따른 밸류에이션 상향이 가능하며, 2차전지 산업이 회복될 경우에 자회사 탐머티리얼(360070)과의 시너지 효과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탐머티리얼은 2차전지 소재와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한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과정내 2차전지 생산라인에 투입되는 장비 선정에 관여한다. 특히, 신규 Fab의 경우 안정적인 수율 및 생산성을 위해 자동화 라인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 동사의 AGV/AMR이 투입되는 공정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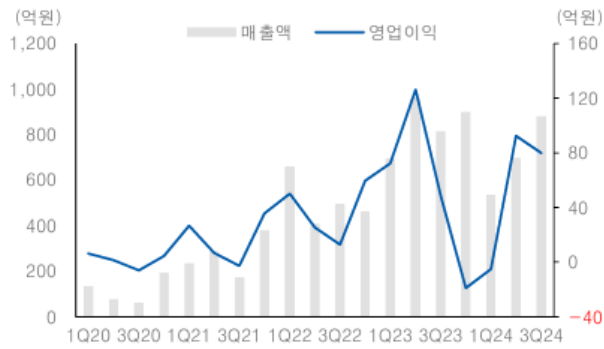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0A	2021A	2022A	2023A
매출액	454	1,063	2,012	3,360
영업이익	6	66	148	228
지배순이익	25	56	26	118
PER	86.3	43.6	103.6	27.2
PBR	2.1	2.3	2.0	2.0
EV/EBITDA	128.9	27.8	15.3	11.7
ROE	2.5	5.5	2.2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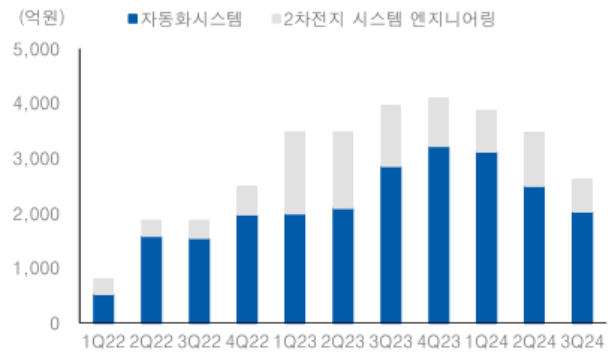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그림 1] 분기별 매출액 & 영업이익 추이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분기별 수주잔고 추이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솔루엠

4Q24 실적은 더 부진하나, 바닥은 지난 듯

[출처] BNK투자증권 이민희 애널리스트

4Q24 영업이익 95억원 예상, 기대치 크게 하회할 전망

4Q24 매출액은 3,254억원(-31%QoQ, 2%YoY), 영업이익은 95억원(-65%QoQ, -36%YoY)으로 예상, 이는 현재 FnGuide 컨센서스(매출액 3,513억원, 영업이익 164억원) 대비 각각 -7%, -42% 수준이다. ESL 매출액이 1,133억원(-18%QoQ)으로 기대보다 훨씬 적을 전망이며, 성과급 및 연말 비용 반영 요소들이 당초 예상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신규수주 회복으로, 향후 분기 실적은 4Q24를 저점으로 내년 3Q25까지 매분기 증가할 전망이다.

ESL 신규수주 증가, 연말 수주잔고 2.1조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 전망

그동안 입찰 진행중이던 유럽의 대형 리테일러들과의 신규수주건들이 연달아 성사되면서, 연말 동사 ESL 수주잔고는 2.1조원으로 예상,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023년 말 수주잔고 1.65조원, 2022년 말 1.6조원과 비교하면 다시 수주 증가 모멘텀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실적 개선을 기대케 한다. 글로벌 ESL 시장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동사가 내년에도 미국, 유럽의 대형 리테일러들과 신규수주 진행 중인 건들이 여러 개 있어, 수주잔고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목표주가 29,000원과 투자의견 '매수'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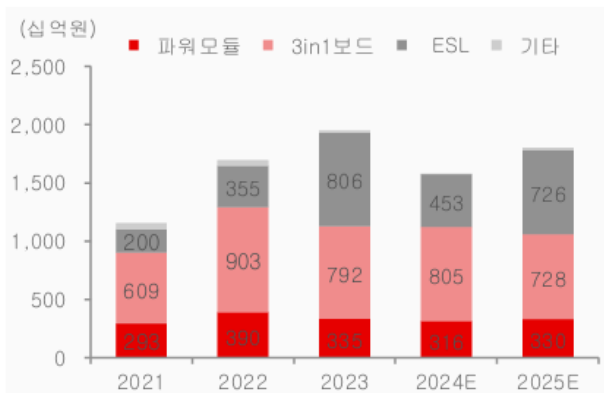
비록 4Q24와 1Q25 실적이 이전 예상치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선행지표인 대형 리테일러들과의 신규수주 성장세가 다시 발생하며 향후 실적 개선 기대를 높이고 있다. 업황 바닥은 지난 것으로 판단하며, 점진적으로 계단식 주가 상승을 예상한다.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9,000원을 유지한다.

Fig. 1: 솔루엠 연결재무제표 요약

	2022	2023	2024F	2025F	2026F
매출액(십억원)	1,695	1,951	1,576	1,804	2,039
영업이익	76	155	77	133	173
세전이익	50	143	69	119	159
순이익[지배]	47	120	57	100	133
EPS(원)	946	2,407	1,144	1,996	2,668
증감률(%)	246.8	154.4	-52.5	74.5	33.7
PER(배)	18.4	11.3	18.6	10.7	8.0
PBR	2.8	3.2	2.2	1.8	1.5
EV/EBITDA	10.0	7.6	10.3	6.7	5.1
ROE(%)	16.9	34.8	13.3	19.7	21.4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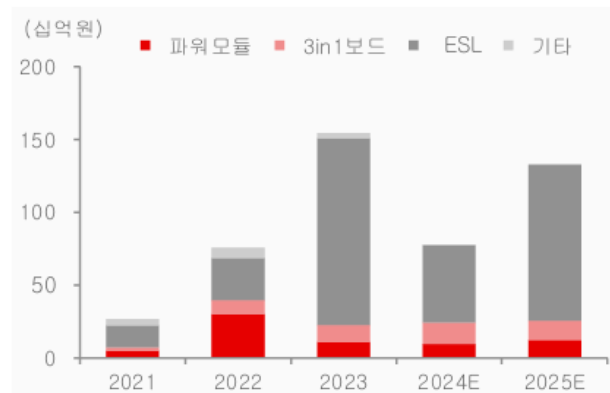
자료: 솔루엠, BNK투자증권 / 주:K-IFRS 연결

Fig. 2: 솔루엠 사업부별 매출액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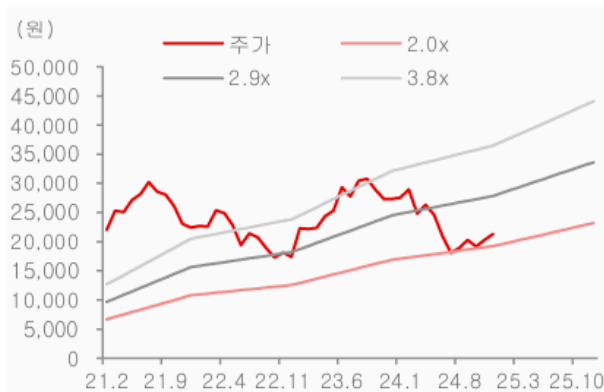
자료: ValueWise, BNK투자증권

Fig. 3: 솔루엠 사업부별 영업이익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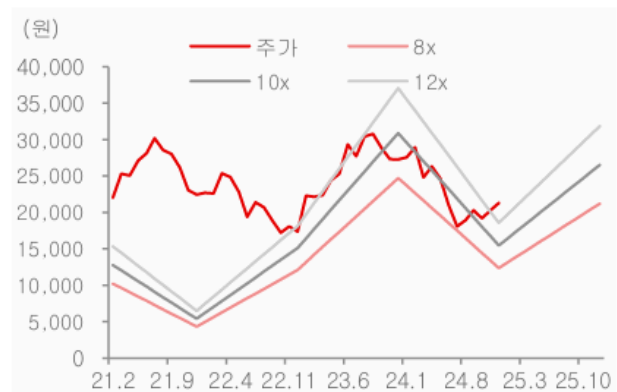
자료: ValueWise, BNK투자증권

Fig. 4: 솔루엠 P/B 밴드 차트



자료: ValueWise, BNK투자증권

Fig. 5: 솔루엠 P/EBIT 밴드 차트



자료: ValueWise, BNK투자증권



우신시스템

자동차 부품 -> FA(공장자동화)

[출처] 유안타증권 권명준 애널리스트

다시봐: 자동차 부품이라는 인식

우신시스템은 1984년 법인 설립했으며, 2001년 코스닥 상장, 2002년도 코스피 이전상장한 기업이다. 사업부는 자동화설비와 자동차부품사업으로 구분된다. 차체 자동화 라인 제조 및 2차전지 배터리 설비 제조는 자동화설비에 해당된다. 자동차 Door, 자동차 안전벨트, 자동차 내장품 제조는 자동차부품사업에 해당된다. 자동차 부품회사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차체설비 국산화로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자동화설비의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Q24(누적) 기준 자동화설비 매출 비중이 60%를 상회했으며, 주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봐: 안전벨트 매출 성장에 대한 낮은 기대감

TAKATA의 대규모 리콜사태 발생 이후 기대되었던 수혜가 올해부터 확인되고 있다. 단일 자동차 제조사에서 다수의 부품의 부품 공급사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콜 사태 이후 기존 공급사의 비중 조절을 통해 단기 대응이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리콜사태 이후 신규 부품사 도입은 제작되는 신차에 적용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준비기간을 고려시 실질적인 변화는 2023~2024년부터 시작, 매출성장세가 확인되고 있다. 동사는 GM를 비롯하여 국내외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연기관차 뿐 아니라 친환경차량으로도 적용 차종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JOYSON(TAKATA인수)는 중국 Ningbo 산하기업으로 미중관계 고려시 북미/유럽 기업들의 선호도가 하향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시봐: 일시적인 실적 개선일 것이라는 예상

3Q24 매출액은 4,256억원, 영업이익 301.6억원으로 2023년 연간 실적을 큰 폭으로 상회하였다.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성장의 초입이라고 생각된다. 2022년은 수주잔고가 1,000억원 이하였지만, 실적 반영된 이후인 3Q24는 2,400억원으로 2배가 넘는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다. 대형프로젝트의 이행 경험은 추후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며, 경쟁사의 비교우위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 자동화설비와 2차전지 FA설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객사의 선택가능성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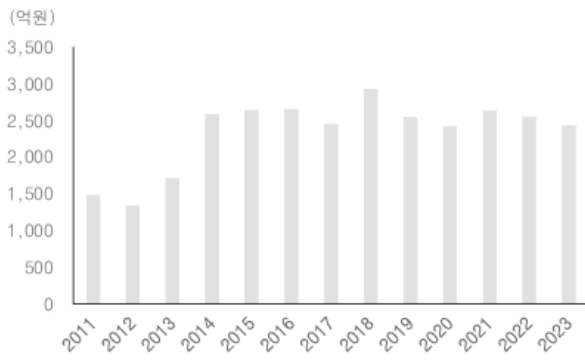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0A	2021A	2022A	2023A
매출액	2,407	2,623	2,545	2,422
영업이익	-36	-115	80	124
지배순이익	-139	-130	28	74
PER	-4.7	-7.2	19.4	14.2
PBR	0.6	1.0	0.5	0.9
EV/EBITDA	20.1	-690.0	6.2	5.9
ROE	-13.1	-13.9	3.1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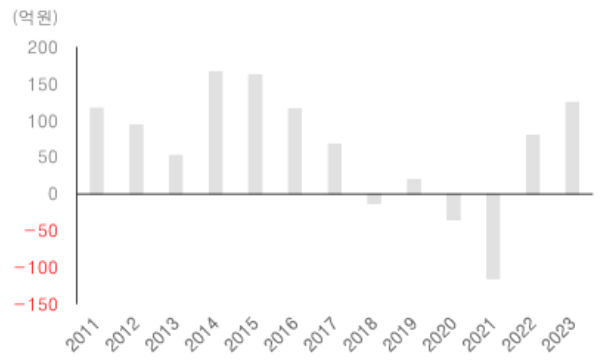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그림 2] 연도별 매출액 추이



자료: 우신시스템,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연도별 영업이익 추이



자료: 우신시스템,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탑런토탈솔루션

OLED 밸류체인 확장 중, 전장 사업부도 긍정적

[출처] 하나증권 김성호 애널리스트

전장 사업부 확장성 유지될 전망

탑런토탈솔루션은 2004년 설립된 전장 및 디스플레이 첨단 부품 ODM 전문 업체이다. 전장 부품 및 IT 부품 사업을 통한 실적 성장을 지속 시현해왔으며 최근 OLED 소재/장비 향 사업 확장이 진행 중이다. IT 부품 솔루션은 Module Drive-IC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Stiffener, 스마트폰 Bend PSA 제품을 주력으로 End-User 북미 세트 업체 A사로 납품된다. 동사가 Sole Vendor는 아니지만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4개 모델 연속 고객사 향 납품을 진행 중이다. 전장 부품 솔루션은 차량 디스플레이용 백라이트유닛(BLU)를 주력으로 국내 고객사 향 납품한다. 3Q24 전장 사업부 매출액은 2,289억원으로 매출액의 58%를 차지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Cash Cow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스플레이 산업 내 OLED 향 전환은 중장기적 방향성이 뚜렷하지만 유의미한 침투율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글로벌 차량용 디스플레이 내 OLED 침투율은 23년 5% → 25F 10% → 28F 15% 수준으로 전망되기에 LCD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LCD 패널 하단부 광원 장치인 BLU 향 수요 또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탑런토탈솔루션은 디스플레이, TV 부품 사업 진행에 따라 국내 LG, 현대 향 매출 비중이 높았으나 현재 전장 사업 고객사 다각화가 진행 중이다. 최근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콘티넨탈 향 465억원 규모의 BLU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6년부터 본격 양산 예정으로 향후 4년간 연간 100억원 이상의 꾸준한 실적 인식이 가능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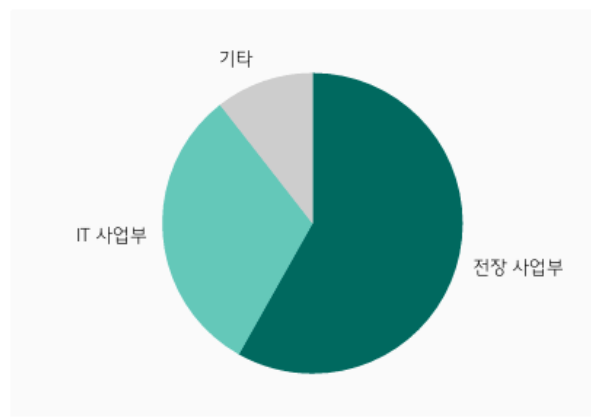
AP솔루션 인수를 통한 사업 다각화

향후 탑런토탈솔루션의 외형 성장은 OLED 관련 신사업이 견인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대비 개선된 QD 디스플레이 소재를 신규 개발하였으며 특히 QD 신규 소재를 통한 화질 개선으로 OLED 대비 화질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LCD를 보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차량 OLED 구동기술을 확보한 디스플레이 검사장비를 개발 중으로 향후 모바일, 태블릿, 전장 향 진출 다변화가 기대된다. 한편 지난 11

월 '타 법인 주식 및 출자 증권 취득 결정' 공시를 통해 디스플레이 검사, 보상장비업체인 AP솔루션 지분 55%를 180억원에 인수 확정하였다. 취득 목적은 OLED 검사 장비 제조사업 진출을 통한 기존 OLED 부품 사업과의 시너지 및 영업망 공유이다. AP솔루션은 2023년 기준 매출액 165억원, 당기순이익 15억원을 시현한 업체로 해당 인수를 통해 탑런토탈솔루션은 기존 LCD BLU 사업을 포함해 OLED 향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디스플레이 산업 내 밸류체인 확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탑런토탈솔루션의 2024년 매출액 5,314억원(YoY +3.4%), 영업이익 254억원(YoY -14.5%)로 예상된다. 3Q24 기준 매출액 3,935억원, 영업이익 218억원을 시현하였으며 사업별 매출 비중은 전장 사업부 58.2%, IT 사업부 31.3%, 기타 10.5%이다. 전방 TV/IT 산업 일부 부진했으며 신사업 관련 연구개발비, 인건비가 2025년도까지 지속 발생할 전망이다. 2025년 매출액 5,531억원(YoY +4.1%), 영업이익 260억원(YoY +2.3%)로 전망하며 향후 해외 고객사 향 전장 사업 수주의 실적 반영과 OLED 사업 진출 본격화 된다면 추가적인 실적 성장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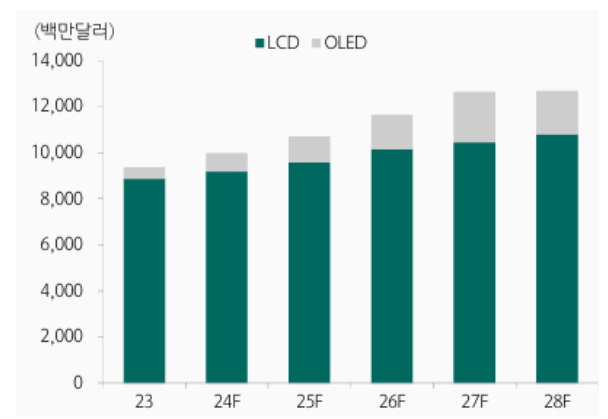
투자지표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370	386	483	514
영업이익	12	11	20	30
세전이익	3	8	7	26
순이익	1	5	4	23
EPS	72	383	269	1,563
증감률	(88.7)	431.9	(29.8)	481.0
PER	0.0	0.0	0.0	0.0
PBR	0.0	0.0	0.0	0.0
EV/EBITDA	0.0	0.0	0.0	0.0
ROE	1.7	7.9	5.0	24.6
BPS	4,137	4,861	5,261	6,355
DPS	0	0	7,000	350

도표 1. 탑런토탈솔루션 사업부별 매출 비중



자료: 탑런토탈솔루션, 하나증권

도표 2. 글로벌 차량용 디스플레이 LCD/OLED 시장 전망



자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OMDIA, 하나증권



## 씨티케이

북미 OTC 마진 30% 제시, 생분해 정책 수혜 기대

[출처] [하나증권 최재호 애널리스트](#)

북미 OTC: 매출액 5년간 연 평균 22%, OPM 30% 제시

씨티케이는 미국 서부(캘리포니아주) 위치한 OTC(Over the Counter, 일반의약품) 공장 인수를 통해 영업 가치가 향상될 전망이다. 인수 기업은 OTC 화장품 전문 OEM 전문 공장(충진 및 포장 위주)으로 이미 매출이 발생하는 업체다. CAPA는 1교대 기준 연간 2.6천만개이며, 2교대까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OTC 공장 가이드는 향후 매출액 5년간 연평균 22% 성장, OPM 15% 이상이다. 동사의 Turn-Key 비즈니스와 결합해 기존 메인 고객사인 글로벌 화장품 기업(로레알, 유니레버, 에스티로더, 샤넬, 디올 등) OTC 제품 추가 확보로 매출 볼륨을 확대하고, 공장 라인 자동화(포장 기계 1대당 인력 2명 대체)로 OPM은 30%까지 향상 가능할 것으로 제시했다. 동사가 경쟁사와 달리 OPM이 높을 수 있는 이유는 유리한 위치와 OTC 제조 전문 공장이기 때문이다. 1) 동사가 인수한 OTC 공장은 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 대다수 공장은 동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글로벌 고객사들 지리적 위치를 고려했을 때 서부는 동부보다 물류비가 낮아 유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동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풀필먼트 공장과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추가적인 물류비 절감이 가능하다. 2) 해당 공장은 OTC 전문 공장으로 기초 화장품 생산을 병행하기 보다는 SPF(자외선차단지수) 화장품, 선크어 제품, 보습제 등을 전문으로 하는 OTC 공장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OTC 제품 위주 생산으로 기초화장품 생산을 위한 전환이 없어 가동률 Loss가 적다. 즉,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할 전망이다.

생분해 플라스틱: 정책 수혜 및 실적 모멘텀 확보 기대

씨티케이의 손자회사 CTK 바이오 캐나다(지분율 100%)는 생분해 플라스틱(PBAT, PHA) 레진을 제조하는데, 국내 및 해외 모두 실적 모멘텀을 확보한 상황이다. 먼저 1) 국내는 친환경 플라스틱인 해양 부표와 멀칭 필름의 채택이 기대된다. 해양산업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부표 시장 예상 규모는 1.2조원이며, 국내에서 사용되는 어업용 부표는 5.5천만개다. 이 중 스티로폼 부표는 3천 941만개로 전체의 약 72%를 차지한다. 스티로폼 부표는 자연 분해가 잘 되지 않고 분해 과정에서 대량의 미세플라스틱을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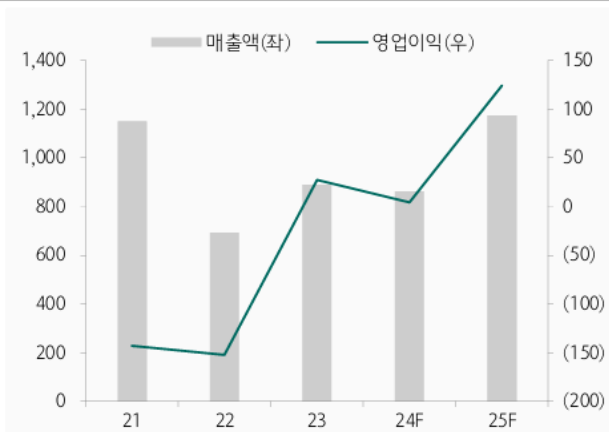
출하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에 2022년부터 해양산업부는 친환경 부표 대체를 위해 부표 구입 비용의 70%(중앙정부 35%, 지방자치단체 35%)를 지원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친환경 부표 누적 보급률은 47.3%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며, 2025년 해양산업부는 10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동사는 친환경 부표 공급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2) 이 외에 국내 농가를 위한 멀칭 필름 시장(국내 시장규모 약 4천억원) 진입을 준비 중이며, 3) 해외의 경우 글로벌 유통사, 항공사, 미국 및 캐나다 정부와 일회용품 및 농업 관련 납품을 논의 중으로 파악된다. 글로벌 생분해성 멀칭 필름 시장 규모만 111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고객사 확보 및 공급 이후 Valuation Rerating을 기대한다.

##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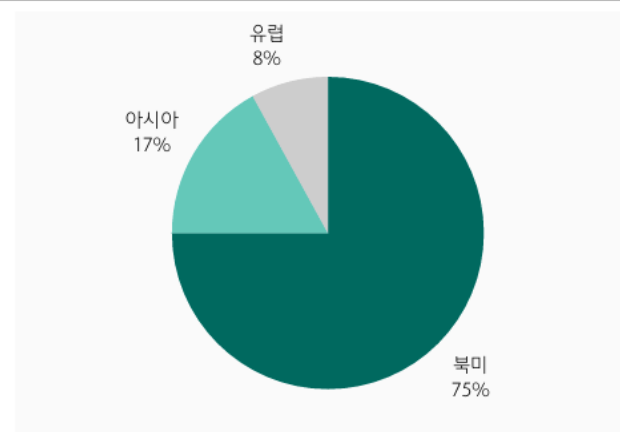
투자지표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124	114	69	89
영업이익	1	(12)	(15)	3
세전이익	(1)	(1)	(19)	6
순이익	(0)	(1)	(18)	7
EPS	(23)	(46)	(913)	359
증감율	적전	적지	적지	흑전
PER	(323.6)	(256.5)	(5.9)	16.0
PBR	0.8	1.3	0.6	0.7
EV/EBITDA	19.1	0.0	0.0	7.5
ROE	(0.3)	(0.5)	(11.5)	4.4
BPS	9,269	9,399	8,388	8,657
DPS	200	100	50	100

도표 1. 씨티케이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이



자료: 씨티케이, 하나증권

도표 2. 1H24 기준 국가별 매출 비중



자료: 씨티케이, 하나증권

도표 3. 글로벌 선 케어 시장 추이 및 전망



자료: Statista, 하나증권

도표 4. 인수 공장 CAPA 및 개요



자료: 씨티케이, 하나증권



에스에이티이엔지

FPD가 당기고 자동화 장비가 밀어주고

[출처] IBK투자증권 이현욱 애널리스트

FPD(Flat Panel Display) 장비 제조, 자동화 사업 영위

에스에이티이엔지는 2004년 설립, 2021년 12월 IBKS 14호와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FPD(Flat Panel Display) 제조용 장비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자동화 장비와 2차전지 소재로 사업 부문을 확장하고 있다. 3Q24 누적 기준 매출액은 66.1억원, 영업적자 -57.2억원을 기록했으며 주요 품목별 매출 비중은 물류 자동화 56.9%, 디스플레이 40.8%, 기타 2.3%를 차지했다. 주요 고객사는 CSOT(중국), Sharp(대만), LGD(한국) 등이 있으나 디스플레이 산업의 투자 지연으로 본업인 FPD 제조용 장비 사업 부진이 24년 실적 악화의 주요 요인이다.

#### 주요 고객사들은 OEM으로 전환 중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 강화로 주요 고객사들은 자체 디스플레이 생산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OEM으로 전환하는 중이다. 이같은 산업의 변화로 주요 고객사들의 1차 벤더에게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동사의 수주잔고는 22년 260억원, 23년 108억원, 1Q24 76억원으로 꾸준히 감소했지만, 최근과 같은 디스플레이 산업 변화로 3Q24 기준 수주잔고는 138억원(디스플레이 118억원, 자동화 장비 16억원, 기타 4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스마트 공장 자동화 시스템 장비를 임플란트 산업으로 공급하기 시작하며 자동화 장비 사업도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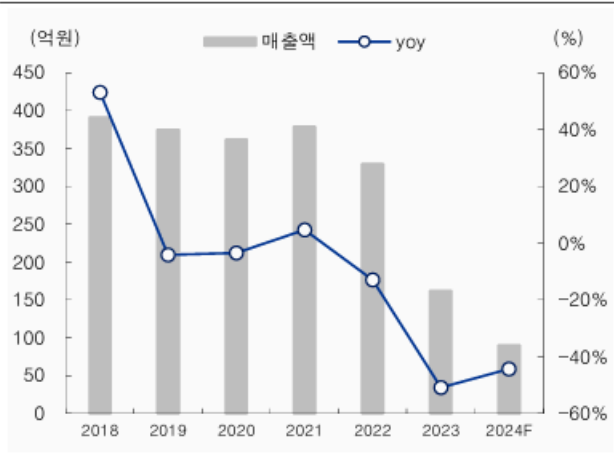
#### OLED + 자동화 장비 트랙으로 간다

수주잔고 매출인식 리드타임이 6~12개월임을 고려했을 때, 2024년 매출액은 90억원이 예상된다. 최근 디스플레이 산업의 변화, 바이오 자동화 시장 진출 등을 고려시 2025년에는 400~450억원의 신규수주가 기대되며 동사의 BEP가 300억원 수준임을 고려 시, 연간 흑자전환은 2026년으로 기대한다. 동사는 OLED + 자동화 장비 두개의 트랙으로 본업에 집중할 예정이며 신성장동력으로 CEPV(세라믹 분리막 코팅 첨가제, 연간 CAPA 200억원 규모)를 준비 중이다.

(단위:억원,배)	2019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375	362	379	329	162
영업이익	-1	26	18	-2	-86
세전이익	-5	23	-65	2	-75
지배주주순이익	5	28	-61	8	-64
EPS(원)	23	138	-300	36	-292
증가율(%)	-41.0	494.1	-317.2	-112.1	-902.9
영업이익률(%)	-0.3	7.2	4.7	-0.6	-53.1
순이익률(%)	-1.1	6.4	-18.5	-0.6	-45.7
ROE(%)	4.3	22.0	-29.9	2.9	-27.6
PER	0.0	15.4	-18.1	76.0	-9.3
PBR	0.0	3.1	4.1	2.2	3.1
EV/EBITDA	13.1	6.5	45.4	95.1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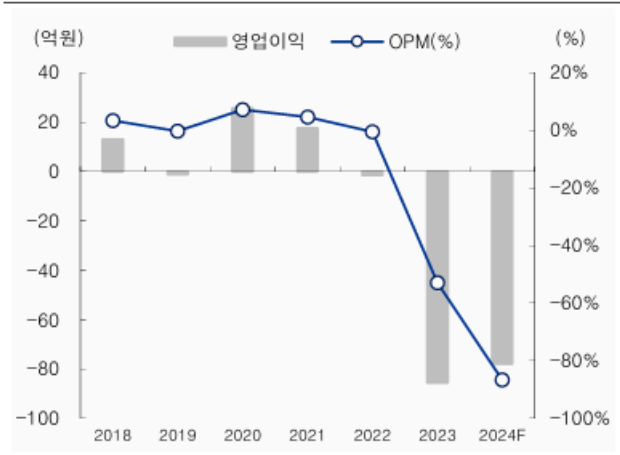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에스에이티이엔지 매출액 및 YoY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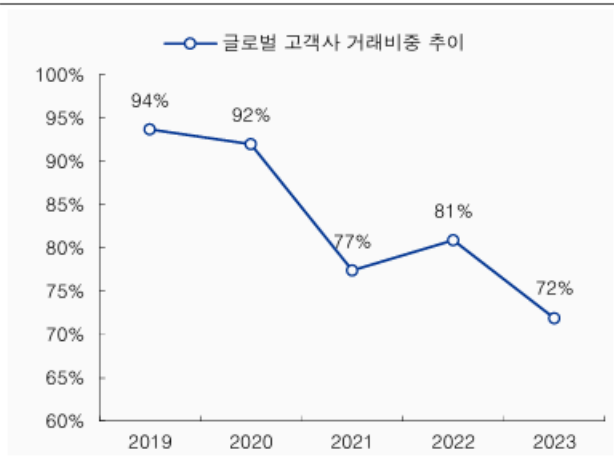
자료: 에스에이티이엔지, IBK투자증권

그림 2. 에스에이티이엔지 영업이익 및 OPM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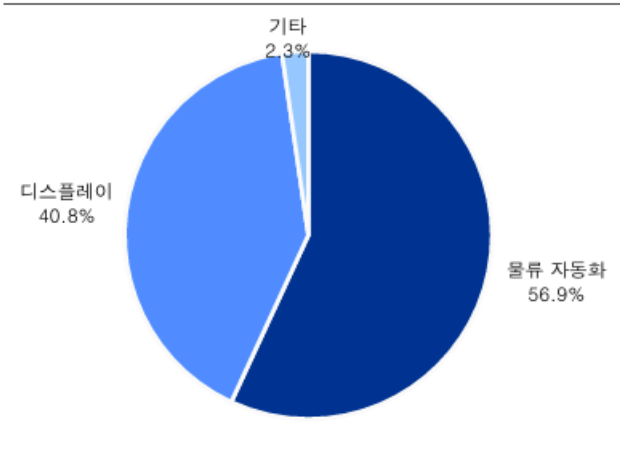
자료: 에스에이티이엔지, IBK투자증권

그림 3. 에스에이티이엔지 Global Top 고객사 거래비중 추이



자료: 에스에이티이엔지, IBK투자증권

그림 4. 에스에이티이엔지 제품별 비중(3Q24 누적 기준)



자료: 에스에이티이엔지, IBK투자증권





바이오플러스  
4분기 실적 회복, 2025년 고성장 전망  
[출처] 상상인증권 하태기 애널리스트

## HA기반 필러, 메디컬디바이스, 화장품 중심 기업

동사는 히알루론산(HA) 기반, 더말 필러, 유착 방지제, 관절용/ 방광용 조직 수복제, 그리고 화장품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다. 2024년 전사 연결 매출액은 628억원, 영업이익 213억원으로 추정된다. 2024년 수출비중이 약 72% 내외이다.

2024년 4분기, 유통구조 개선 효과로 매출 회복 폭 클 전망

주요 제품별 영업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HA기반 필러 매출이 회복되고, 2025년부터 성장할 전망이다. HA필러는 그동안 2021~2022년에 30~40%대 성장하고 2023년에 10%대 성장했으나 2024년 상반기에 유통구조를 기존의 다양한 ODM 영업구조에서 대형 ODM, 자사 대리점, 권역별 거점 중심으로 개편했다. 이로 인해 2024년 3분기 누적 HA 필러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28% 감소한 256억원을 기록했다. 저가 ODM업체 영업에서 탈피하고 직수출, 대형거래처 위주로 전환했다. 6개월 내외로 유통구조 개편이 완료되면서 4분기 HA필러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78% 증가한 214억원으로 전망된다.

둘째, 메디컬 디바이스, 화장품은 작은 규모지만 안정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우선 메디컬 디바이스에는 유착 방지제, 관절용/ 방광용 조직 수복제가 있고, 각각 연간 매출이 30~50억원 수준이다. 향후 화장품 매출을 크게 키운다는 계획이다. 셋째, 장기 성장 비전도 준비 중이다. 필러에서는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2025년에 가교 임상을 통해서 2026년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2024년까지 하이난 공장 GMP승인을 받고, 2025년 4분기에 필러 품목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이난 공장생산과 한국 수출의 두 트랙 전략을 진행 중이며, 하이난공장에서 필러생산 전까지는 화장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필러/화장품 이외에 장기적으로는 비만치료제와 유전자 재조합 기반 보툴리눔 독신사업도 준비 중이다.

### Financial Data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PER (배)	EV/EBITDA (배)	PBR (배)	ROE (%)	배당수익률 (%)
2022	57	25	21	362	19.2	12.7	3.7	22.0	1.0
2023	65	28	26	438	15.7	11.7	3.3	21.2	1.0
2024E	63	21	20	338	20.3	17.3	3.3	15.3	1.0
2025E	81	29	23	397	17.3	12.0	2.9	16.7	1.0
2026E	95	34	27	464	14.8	10.2	2.5	17.0	1.0

자료: K-IFRS연결기준, 상상인증권

